

# 초대권

INVITATION

제3회 성탄축하

##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출연 :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성가대  
 워싱턴 대학 CHAMBER ORCHESTRA  
 일시 : 1983년 12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U of W Kane Hall Robeck Auditorium 130호

\* 어린이의 입장을 삼가해 주십시오.



한국의 정취를 살리며  
 아담하게 단장된  
 한국식당

(6월 8일 채널 5 아침 9시에 한일각음식 소개되었음)

한일 가족을 찾습니다.

- 호스테스 0명
- 각테일 웨이트레스 0명

한일각 대표 신 응 호

(시애틀 차이나 타운내)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 206 ) 587 - 0464 · 0465

### 83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안내

본 한인회에서는 년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뜻 깊은 "아리랑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12월 17일 오후 8:00시-새벽 1:00

장 소 : Univ. of Washington, HUB 강당

입 장 권 : 1인당 \$10.00  
 (야식, 음료수, 맥주 또는 각테일 무료 제공)

금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를 거행키 위하여 현 한인회 임원들의 수차에 걸친 회합에 의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교포들의 참석을 목적으로 하며 절대적인 최흥의 만 께를 목적으로 평년에 있었던 저녁식사의 부족성과 복잡성을 피하고 행사도중 본 회의 계획순서에 의하여 간단한 야식과 음료수로 대처 하였으며, 본회가 사용될 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대학당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판매의 현금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관계상 시중(한인식품업소)에서 예매되고 있는 입장권에 야식과 음료수 그리고 맥주와 각테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행사의 추진 계획 방식이나 또한 당일의 시행될 좀더 획기적인 최흥 의 주의 계획에 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참석을 바랍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내년을 향해 한해를 회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12월의 "아리랑의 밤" 을 끝으로 올해 한인회의 활동이 마무리 된다. 짧다면 짧은 지난 12개월 동안을 한인회를 맡은 일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가지 벽찬 작업을 많이 해냈다. "한국음식" Ethnic Food Festival, Seafair Parade 등은 미국 사회에 한인들이 공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문화집단임을 보여 주었던 행사들이 있었고, 우리 한인사회 자체의 단합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날 행사" "경노 잔치", "체육 대회", "씨애틀-벤쿠버 합동 야유회"로 이년에 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올해 한인회가 이룩한 특기 할만한 업적은 "한인학교"의 설립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현직고사들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사진을 중심으로 이민사회의 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에게 모국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의 기반을 한인회는 착실히 구축하였다. 현재 매주 꼭준히 토요일 한인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외에도 올 한인회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과 비판을 모아 일을 계획 추진하기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범교포적인 화합과 청문회등을 전례없이 많이 마련하는 활력을 보여 주기도 했다.

보는이에 따라서 한인회가 그런일을 한것이 뭘 그리 대단한것이냐고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적 물질적 보상없이 순수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생활에 여념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런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아가며 한인회를 이끌어온 신호범 회장의 인격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싶으며, 사심없이 그를 열심히 도와 모든일에 유종의미를 거두게 해준 이사, 임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이에 못지 않은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올해 한인회를 훌륭히 밀고 나간 일꾼들중 조성옥 총무부장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내고 싶다. 조성옥씨는 4년전 한인회장을 지낸 개인적 워신을 지니고 있음에도 총무직을 선포 받아들이 힘드는 한인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열심히 일해주었다. 모두 알다시피 한인사회의 풍토속에서 한번 어떤 단체의 장을 지냈던 사람이 후에 같은 단체에서 전보다 낮은 지위를 수락하는 사례는 거의없다. 씨애틀 한인사회 아니 전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전례없이 전직회장의 경력을 개의치 않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무직을 기꺼히 수락 1년간 어렵고 고달픈 한인회 살림살이를 성실히 수행한 조성옥씨의 용기와 겸손이 고포사회에 길이 남을 만한 귀감이 될것으로 믿는다.

작년과는 달리 조용하게 끝낸 올해 한인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내년도 한인회 이끄러갈 착실한 새 회장단이 뽑힌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해 여러가지 못다한 일들을 새 회장단이 물려 받아 한인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언젠가 신문에서 어느 한인사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것이 기억난다. "그처럼 웅성하던 로마제국이 망할때 해로 황제가 등국하면 전황제의 등상을 부서버리고 자기 등상을 새우기에 바빴다. 우리 한인사회도 새로 회장단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을 드높이기 위하여 전임자가 했던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전에 못했던 일을 완성하면서 새 업적을 이룩하는 정신자세가 아쉽다". 우리가 착실한 고포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여야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지역 한인사회는 지난 한해를 회고 해볼때 알록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산고훈을 얻은것 같다. 더욱이 우리는 이광대하고 다수 민족 집단의 이해가 엇갈리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애기의 첫 걸음마처럼 연약한 발디딤을 하는 역사적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때, 한사람 한사람의 내가 조금이나마 한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진보에 기여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어주었으면 한다. 직접 간접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게가 보기싫어서 나는 참여 않겠다". 라던지 "나없이 그자들이 하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는 식의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전체를 위해 자살행위 일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할것같다.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할일을 남긴 한인회가 내년에는 좀더 힘차고 견고하게 향상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1983년의 마지막 달력을 내리고 싶다. (K.P.)

## 1983년 한인회장 임기를 끝내면서\*\*\*



한인회장 신 호 범

배려 주셨기에 그 많은 행사를 보람있게 치를 수 있었으며 무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 이사분들의 부인들과 함께 영사관 무역관을 비롯한 지사 상사부인들 및 각 한인단체에 관계되신 부인들께서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외 한인회 자문위원, 한인학교 교사 및 학부모회 해병동지회, 기능사협회, 간호협회에서 우리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애틀 총영사관의 협조와 각교회 목사님과 신부님께서 우리 교포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물질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하여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나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많은 교포 여러분께서 한인회 행사때마다 도움이 필요할때는 서슴없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하여 정만고마움을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름을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염려 덕분에 1983년도 한인회 봉사를 거의 끝마무리를 하면서 인사 드릴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본인에게 중책을 맡겨 주시고 물질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셨으며 충고하여 주셨기에 무난히 끝나고 있습니다.

금년 일년동안 저와 같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 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교포사회를 위해 현실적인 봉사를 해주신 광종세부회장, 오계희 부회장과, 조성옥 총무, Mrs. Smith 재무, 박태호 재무, 이현진섭의, 박건홍 편집, 허권홍보, 이신남 체육, 김영남 봉사, 이성덕부녀, 백경숙교육, 이정언 청년, 이춘영경로, 박봉수 조직, 이창국 문학예술등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립 이사장을 비롯한 손옥봉 부이사장 엄도승 총무이사, 문근성이사, 장부관이사 전영환이사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동안 위에 밝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박하지 않으시고 많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많은 단체와 개인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셨기에 한인회 사업과 행사가 큰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83년도 한인회의 활동을 밝혀 본다면 이곳 미국사회에 크게 발전한 우리 한국 교포사회의 모습을 알리는 대외적인 활동 및 행사로서는 John Spellman주지사, Ralph Munro주무장관, Charles Royer Seattle시장 및 Fitzinoms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한국 교포사회의 지위향상과 주정부 및 시정책 당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하였습니다.

주정부Liquor Control Board(주류관리청)에 한인 영세 상인을 위한 교섭, 타코마 트리본지에 신문기사 항의견 방문, 한국의 날 선포 및 한국의밤 개최, 주정부 Gambling commission 해명방문, Seafair Parade 참가, Northwest Ethnic festival 및 Bellvue Ethnic Awness Day 참가, Kal 007기 추락 소련만행 규탄대회 및 데모, 한인회장, 주지사 및 일행을 동반하여 한국과 일본방문등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대내적인 행사로서는 한인회 사무실 이전 및 상주 직원채용, 조찬기도회, 3.1절행사, 한인학교 개설, 시애틀-벤쿠버 교민 합동야유회 및 체육대회, 광복절행사, 어린이날 행사 및 운동회 식품업자 간담회, 이철수 후원 연석회의, 장년 축구대회 참가, 경로잔치 및 앞으로 있을 아리랑의 밤등입니다.

그리고 Boeing 회사에서 Boeing Neighborhood fund로 \$7,950을 기증받아 한인회 사무실 비품, 가구 및 사무용품을 마련했는데 복사기가 마련되어 얼마나 도움이 큰줄 모릅니다.

일년을 지내고 각 행사등을 회상해 보면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만 저는 이러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우리교포 사회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대외적인 행사로 인하여 우리 한인사회가 주정부기관, 시당국 및 각 사회단체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알려졌으며 또 우리나라 문화, 역사 및 풍속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촉으로 인하여 한인 사업체, 직장 또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Spellman주지사가 4월23일을 "한국의날"로 공포하고 Olympia주청에 하루종일 태극기를 휘날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영광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많은 대내적인 행사로 교포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 친목을 다지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것은 이민 생활에 발전적인 기회를 드렸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 한인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열성적인 봉사로 한인학교를 재 설립하고 한글과 한국문학예술을 가르쳐 주고 해군도와 고전무용을 가르쳐줌으로 한국의 얼을 이어 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쳐온 벼루, 먹, 붓으로 붓글씨까

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어회화, 미국 생활 상담, 꽃꽂이, 요리강습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이 영어밖에 몰랐으나 지금은 "아버지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할때 저는 흐뭇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인회는 우리 교포 이민생활에 중요한 단체라 봅니다.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한민족의 문화를 미국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또 단체를 통하여 이민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속에서 한인회를 위해 무사히 봉사할 수 있었음을 제삼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실수를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드분에게 실수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충고로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보다 나은 한인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컨데 1984년도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오계희 회장님, 이순모, 이현진 두 부회장께선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시기에 계속해서 도와 주시고 금년보다 더 발전된 한인회가 되도록 적극 후원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신 호 범 배상

### 83년도 총회결산 보고

본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에서 년례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11월3번째주 토요일의 정기총회는 약 5-60여명의 교포가 몰인 가운데 11월 19일 오후 3:30분에 LAKE CITY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조성옥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 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신호범 회장의 감사를 겸한 인사와 씨아틀주재 총영사관의 이문수 총영사의 격려사에 이어 사업 및 재정보고가 있었으며 곧이어 회의에 들어 갔습니다. 평년과 달리

간단한 회의 과정을 겹치고 심의를 마친 선거관리위원회로 손서를 올렸으며 관리위원장으로서 있는 한만섭 위원장은 단독 입후보 등록을 마친 오계희 회장님(회장 오계희, 부회장 이순모, 부회장 이현진, 신사 DAVID 홍, 광종 세, KEN 박) 당선을 결의 하였으며 곧이어 '84년도에 회장으로 임될 오계희 회장 당선자의 간단한 인사를 끝으로 이날 총회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행사 내용과 재정보고를 게재 합니다.

### 83년도 행사 및 사업보고서

#### 1월

- 3일 82년도 회장단으로부터 업무 인수
- 3일 년중 행사 계획 수립
- 5일 와싱턴 주지사 및 주 총무장관 방문
- 11일 이사.임원단 영사관 공식 방문
- 15일 한인학교 개교 준비위원회 구성
- 17일 이사회 임원 개선
- 22일 초찬 기도회
- 28일 한인회 사무실 이전
- 29일 한인회 사무실 연판식 거행
- 29일 한국의 밤 준비위원회 구성
- 29일 한인회 사무실 상근직원 채용

#### 2월

- 5일 한인회 회록 수립위원회 구성
- 8일 씨아틀 시장과 경살시장 방문
- 11일 보선이사에 장부관계 결정

#### 11월

한인학교 교사진 결정

#### 19일

STATE LIQUOR CONTROL BOARD 에 소수 민족 주류판매 자격에 관한 시정 촉구 3.1절 행사 거행

#### 26일

#### 3월

#### 2일

- 가. 기관설립의 재구성
- 나. Sea Fair Parade 준비위원회 구성
- 다. Olympic 준비위원회 구성
- 마. 4.23.한국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 23일

"한국의 밤" 행사 초성장 발부 시작

#### 24일

한인학교 교사진 연합회의

#### 4월

#### 2일

한인학교 개교

#### 6일

Tacoma News Tribune 지에 대한 합의서한 발송

#### 6일

한인학교 교장 선임

#### 14일

아코마 News Tribune 사 방문 (목적 : 한인교포사회 기사에 관한 건)



## 김 목 공 소



###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최신형 공구및 장비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 771-8019

##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23일	"한국 의 날" 행사 거행	10월	
29일	한인학교 고급 선입	10월	"BGNF"로 부터 \$7,950.00의 사무용품 구매 신청서가로 사무용품 일괄 구매와 구입
5월			(1) 자동 복사기
13일	식품업소 자들과 함께 Washington Gambling Commission 과 연석회의		(1) 영문 하자기
15일	건축위원회 재구성		(2) 계산기
16일	"BGNF" 에 재정 지원서 신청 (보잉 이웃돕기 자선단체)		(60) 착상용 책상외자
6월			(2) 설계 서류함
11일	어린이날 행사 거행		(10) 사무실용 설계외자
20일	아입지에 항의서한 발송		(10) 사무실용 고급외자
24일			(1) 비서용 외자
25일			기타 사무용 또는 아작용 용지 일괄
26일	N.W. Ethnic Group Festival 행사 참가	15일	경노 잔치
27일	식품업소자 관담회	25회	입원회의 (이사입원 공동회의 포함)
27일	제 2차 "BGNF" 재정 지원 신청 (보잉 이웃돕기 단체)	4회	여사회의
7월			5차에 걸친 회보 발행
16일	한인학교 "Field Day"	15회	1월부터 5월까지 회장단 24개 고회
23일	장년 축구대회 참가	12회	각종 행사 준비에 필요한 여행연습 및 회의 집회
26일	제 3차 "BGNF" 에 재정지원 신청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한 부인회 집회
8월			
5일	Sea Fair Parade 참가		
15일	8.15 광복절 행사 거행		
20일	이철수 후원회측과 연석회의		
27일	Seattle-Vancouver 합동 년례 야유회		
9월			
4일	"KAL" 기 사건에 대한 결기 메모 감행		
8일	선거관리위 구성		
10일	한인학교 독립된 부서로 가결 인정		
17일	Ethnic Awareness Festival 참가		
21일	일본 용역사관측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		
26일	와싱톤 주지사 일행과 함께 신뢰장 한국 방문 (고포를 대표하여 의견안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		

## K.P. 번역원

<연방법원·이민국 인가>

●서류·책자 고급번역/작성

●사건 조사·처리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유능한 전문번역사 선정

●각종 상담

3223 N.E. 104th St.,  
Seattle, WA 98125

(206) 527-8094

### K.P. Translation Services

(Translator English - Korean)

## 1983 년도 한인회 재정보고

수 입 내 역		건 속 계 정	
1983년 10월31일 현재		수 입 지 수	지 출 지 수
1. '82년도 이월금액	479.48	1. '82년도 이월금	160.86
2. 하이회비	3,350.00	2. 기부금	1,410.00
3. 일반기부금	6,408.13	3. 정기이자수입	1,433.36
4. 건축기금	1,410.00	4. 정기예금	16,500.86
5. 광고비	2,930.00	계	\$19,505.08
6. 각종행사차조금	21,399.75	총 계	\$25.39
(총행사관찬조금 \$4,100포함)		정기예금	\$17,934.22
7. BOEING 사무용품구입 기부금	7,950.00	총 계	1,570.86
	\$43,927.36	수수료	-25.39
		총 계	\$19,479.69
		지 출 내 역	
		1983년 10월 31일 현재	
1. 사무실 사용료		1. 사무실 비품 구입비 (BOEING FUND)	5,213.79
2. 하이회비		2. 회의비(외부인사 및 VIP인사 접대비)	383.94
3. 행사광고비		3. 회의비	176.80
4. 건축화환		4. 사무용품 인쇄비	504.75
5. 사무실 직원급료		5. 사무용품 구입비	319.60
6. 한글학교 비용		6. 각종찬조금	1,400.00
7. 각종 행사비		7. 은행수수료	72.54
(1) 조찬기도회	1,089.56	8. 사무실 직원 분기 보고서	49.52
(2) 사무실 식판식	168.08	9. 잡비	152.23
(3) 3.1절 기념식	48.02	총 계	\$43,982.76
(4) 한국 의 날 행사비	11,457.13		
(5) ETHNIC 행사 등록비	25.00		
(6) 한글학교 야유회	424.35		
(7) SEA-FAIR 행사비	2,474.22		
(8) 8.15 기념식	173.75		
(9) 배쿠버-씨아틀 학동 야유회	752.19		
(10) 경노 잔치	2,360.00		

## 83 년도를 보내면서



이사장 이 동 립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83년도가 저녁노을의 햇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해의 아침햇살이 비추어 오면 보다더 활기있고 보다더 힘찬 일꾼들이 오는 새해의 교포들의 발전과 복지번영을 도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벽차고 흐뭇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간 모든것이 부족한 본인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교포 여러분의 힘으로 1년동안 대과없이 한인회 이사장의 중책을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는것도 받는것도 없이 미움을 살때도 많았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내가 "본연의 나"를 초월해서 본인에 넘치게 "나 이상의 일"을 해가면서 많은 교포가 무관심한 한인회 및 교민 사회를 위하여 꼭 봉사를 해야할 이유가 어디있나하고 자문할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쁜것간에 "핏줄"과 "뿌리"를 가진 내동족의 일익에 스스로를 달래며 어쩔 수 없이 또 참으며 한인회에 발을 들리곤 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생업은 들쭉거리기도 가정의 확박이 뒤엎어져 가끔은 오랜시간을 혼자 있으면서 사색에 잠겨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렵고 말많은 교포 사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들에 내자신을 억제할 수 없도록 깊은 회의를 느낄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든 모르든 순수한 마음으로 이고장의 교포들의 확박단합과 "조용한 교포 사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변영하여 가는 교민 사회를 위하여 봉사 정신으로 임해 왔었으며 봉사자의 일원이기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록 다난했던 해와 함께 나의 임무를 마치게 되니 한편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며 그간 많은 격려를 해주신 교포 여러분께 일을 다하지 못한채 자리를 떠나게 되니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대의적으로 고취시키는데 희생적으로 노력하신 신호범 한인회장 이하 각 임원 이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오며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행사때마다 모든것이 서툰 여건들을 딛고 헌신적으로 자진 봉사해 주신 임원, 이사직원 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들이 다하지 못한 일들을 새회장단들이 무난히 계승하여 성사시키리라고 믿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힘껏 미는 아름다운 교포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새 회장단은 보다더 폭 넓게 교포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어려운 일을 순기롭고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줄로 믿으며 모든 유관 기관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조로 효율있게 일을 하여 한인회와 교포사회를 이끌어가며 모든 교포가 융합단결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 이고장의 우리 교포 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좀더 "성의와 관심"을 갖으시고 한인회를 돕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포가 "한덩어리로 뭉쳐서" 변영된 교포사회 건설 발전과 단합을 위

하여 상호 협조하는 명량한 한인사회 건설에 각자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싶은것은 신년도에는 한인회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성취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끝으로 교포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편달을 바라오며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과 번영이 항상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은 교포 모두가 다 '참여'하는 한인회, 명량하고 '조용한' 한인사회가 되기를 다시 빌면서....

이 동 립 드림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IATA, ATC, PATA 회원

**523-7057**

\* 24 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 국내외 항공판매 (일부도 가능)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각종 번역 및 통역
- 각종 여행수속
- 호텔 렌트 카 예약
- 항공 보험
- 공중업무
- 이민 법률 안내

10 · 11월분 재정보고

A. 한인회비

성명	금액	경품	총계
1. 나미안 (NAMI AN)	20.00		\$3,345.00
2. 김민정 (KIM MINJUNG)	20.00		
3. 김민정 (KIM MINJUNG)	20.00		
4. 김민정 (KIM MINJUNG)	20.00		
5. 김민정 (KIM MINJUNG)	20.00		
6. 김민정 (KIM MINJUNG)	10.00		
7. 김민정 (KIM MINJUNG)	20.00		
8. 김민정 (KIM MINJUNG)	20.00		
9. 오영주 (OH YOUNGJU) (ROBERT Y. O)	20.00		
10. 김민정 (KIM MINJUNG)	20.00		
11. 김민정 (KIM MINJUNG)	20.00		
12. 김민정 (KIM MINJUNG)	20.00		
13. 김민정 (KIM MINJUNG)	20.00		
계	\$250.00		

B. 경노잔치찬조금

1. 회계고 회백합회 대표 이보희	30.00	
2. VANCOUVER 노인회	30.00	
3. 총영사관	50.00	
4. 씨아 (LEE'S TIRE & AUTO CENTER)	200.00	
5. MR'S LEA ARMSTRONG	50.00	
6. 오영주 (지흥거친업)	50.00	
7. 이기 (동화기업)	50.00	
8. 김민정 (김민정)	50.00	
9. 김민정 (부동산)	30.00	
10. 김민정 (부동산)	100.00	
11. 김민정 (부동산)	300.00	
12. 김민정 (부동산)	100.00	
13. 김민정 (부동산)	150.00	
14. 김민정 (부동산)	50.00	
15. 김민정 (부동산)	30.00	
16. 김민정 (부동산)	40.00	
17. 김민정 (부동산)	20.00	
18. 김민정 (부동산)	50.00	
19. 김민정 (부동산)	100.00	
20. 김민정 (부동산)	250.00	
21. 김민정 (부동산)	20.00	
22. 김민정 (부동산)	50.00	
23. 김민정 (부동산)	50.00	
24. 김민정 (부동산)	50.00	
25. 김민정 (부동산)	150.00	
26. 김민정 (부동산)	45.00	
27. 김민정 (부동산)	20.00	
28. 김민정 (부동산)	800.00	
29. 김민정 (부동산)	100.00	
30. 김민정 (부동산)	30.00	
31. 김민정 (부동산)	300.00	

C. 사무용품 기부금

1. BOEING FUND	\$7,950.00
----------------	------------

D. 광고비

1. 강씨 양복점	50.00
2. APPILLO T.V	60.00
3. 현대식품	10.00
4. 김영남	10.00
5. KINGS T.V	30.00
6. 이영주 치과	40.00
7. 대한선주	240.00
8. 노명채 산부인과	300.00
총계	\$740.00

E. 1984년도 회장단 및 이사신립금

F. 회비추가분	50.00
박영균	20.00
G. 일반기부금 Myrna K. Lee	200.00
(이동립씨부인)	
총계	\$1,600.00

총계 14,155.00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  
(9시~6시)  
367-5570/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시애틀)  
927-4996(타코마)

송년 및 신년맞이 대세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식품점에서는 다저물어가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면서 항상 저희 식품점을 아껴주시던 고객 여러분의 성의에 보답코져 "송년 및 신년맞이 대세일"을 하오니 일차 왕립하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3년 12월 3일 ~ 12월 31일까지

국보 80 lb	19.50	등심불고기 1 lb 특	1.79
장미표 쌀 100lb	19.85	안심불고기 1 lb 보	1.89
일제소면	.55	특제갈비 1 lb	1.69
김치용고추가루 상품 lb	1.89	보통갈비 1 lb	.99
고추장고추가루 상품 lb	1.95	소 족 lb	.79
아지노모도 1 lb	1.19	곱 창 lb	.79
가도야참기름 56 oz	5.95	김장배추 1 box	6.50
기꼬만간장 1gal	3.99	김장무 1 box	9.00
한국당면(봉지) - 16oz	.99	참 깨 lb	.79
통김치 1gal	6.50	간 녹 두 lb	.89
꽃배추김치 1gal	4.95	도라지(봉지) 8oz	2.49
총각김치 1gal	4.95	메주 콩 lb	.55
물오징어(大) lb	.60	상기품목 이외에 전품목	
새우젓(6젓) 1gal	17.00	<b>대세일</b>	
영광굴비 1 lb	1.99	카세트 · 레코트 개당	2.50
멸치젓 1gal	10.00		
콩 치 1 lb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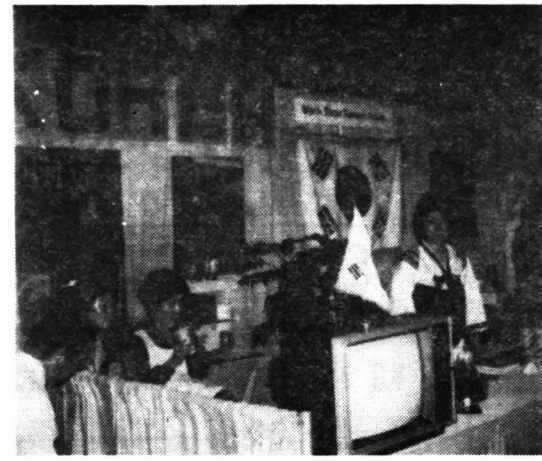
선물용품 50% 할인

중앙식품 762-5620

Open 아침9시부터 저녁9시(년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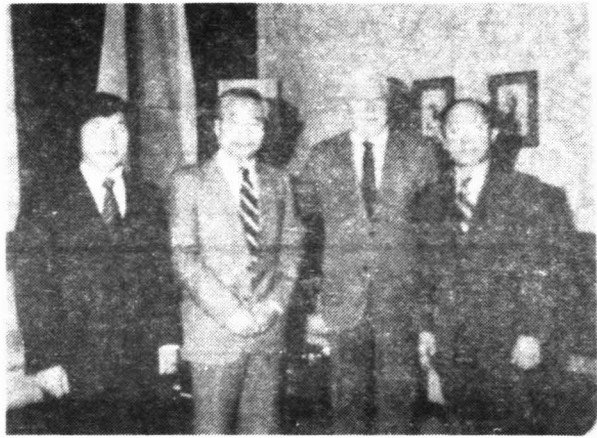
8월 27일 - "SEATTLE-VANCOUVER 합동" 년 레야유회



6월 24일, 25일, 26일 - "N.W. ETHNIC GROUP FESTIVAL"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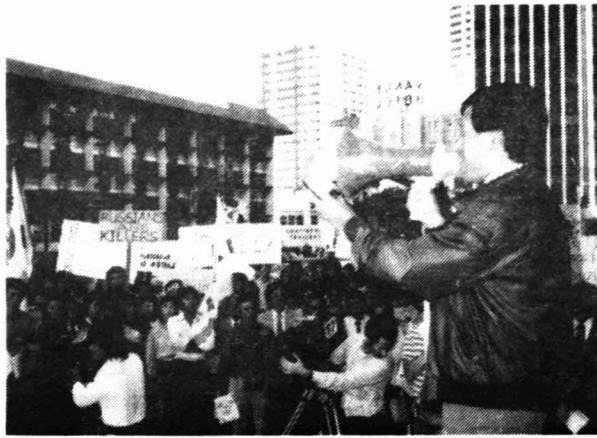
8월 15일 - 광복절 행사 거행



1월 5일 - 주지사 방문



2월 8일 - 씨아틀 시경국장 방문



KAL 사건 쟁기대회에서 조성욱 총무의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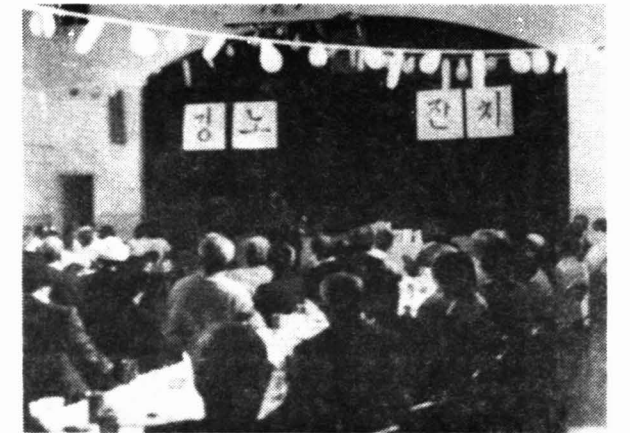
2월 8일 - 씨아틀 시장 방문



3월 23일 - "한국 의 밤"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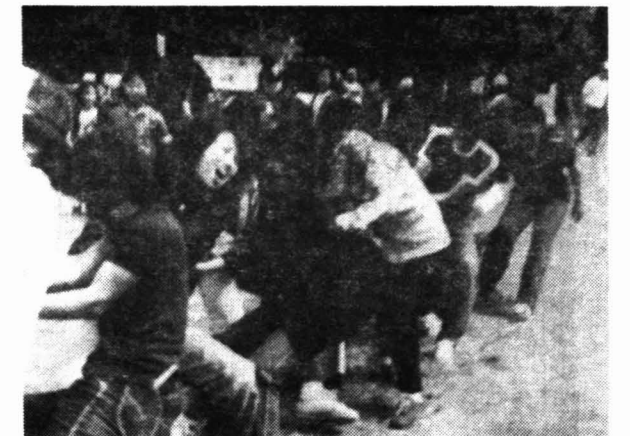
9월 17일 - ETHNIC AWARENESS FESTIVAL 참가



10월 15일 - 경노 잔치



8월 5일 - SEA FAIR PARADE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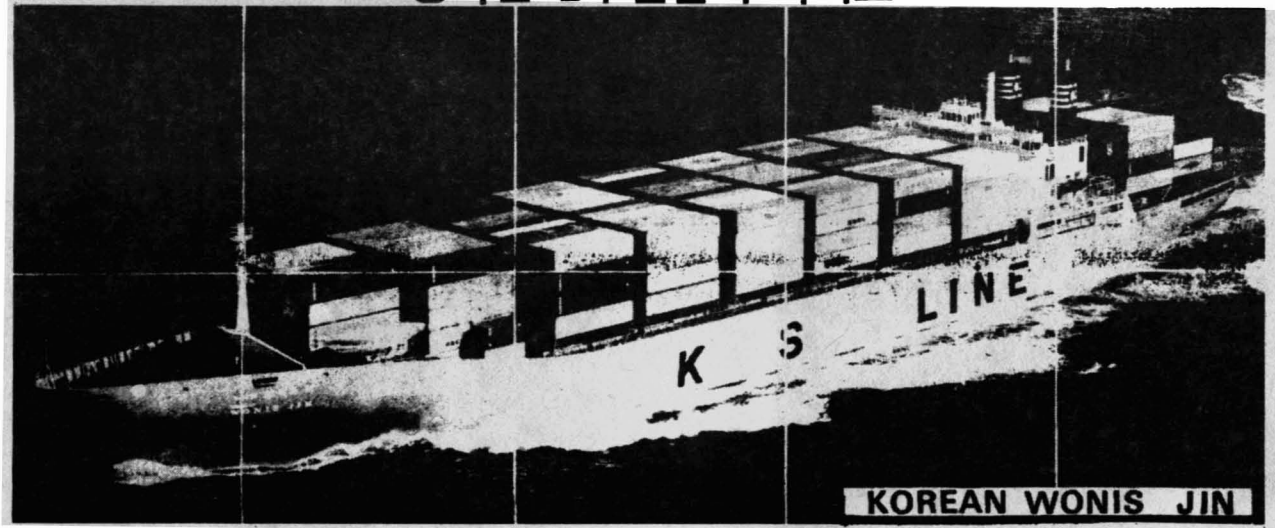
6월 11일 - "어린이날" 행사

한국해운의 기수

# K.S. LINE

## 미주항로 최대의 18척 운항개시

정확한 1주일간격 서비스



32년 역사를 가진 국적선사 K. S. LINE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기존 극동·미동해안 항로를 11척 선대로 대폭증가하고 극동·미 서해안 전역을 6일 간격으로 서비스하는 서해안 특별 서비스를 개설하여 총 18척의 태평양항로 최대의 선대로 하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극동및 미서해안 특급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 컨테이너선 7척
- 항 차간격 : 6일
- 부산·시애틀항해일수 : 1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서해안전역·중서부및 GULF 지역

### 극동및 미동해안 서비스

- 투입선박수 : 풀컨테이너선 11척
- 항 차 간격 : 7일
- 부산·뉴욕항해일수 : 27일
- 기항지 : 한국·일본·대만·홍콩·동남아전역  
미동해안및 EAST CANADA 전역



##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2121 4th Ave. #1520 SEATTLE, WA 98121

(206) 625 1960

## 한인학교 한인회에서 독립

### 자체운영의 범교포적 학교로

년초인 4월2일 개교를 보았던 '한인학교'는 그간 한인회 산하 예산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월10일 한인회에서 독립하여 자체운영의 학교로 운영되게 되었다. 이로써 한인학교는 한인회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체로서 매년 연속적으로 운영 지속하게 되며, 자체의 독립 운영체제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 교과과정은 한국어 회화, 한국어 독서(글과 읽는법) 한국 고전무용, 한국 역사 및 풍습, 태권도, 붓글씨(서예,서화),음악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년어린이들을 위하여는 고전 이야기, 공작(한국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그림, 그리고 한국 문화 풍습영화 상영들이 포함된 교과정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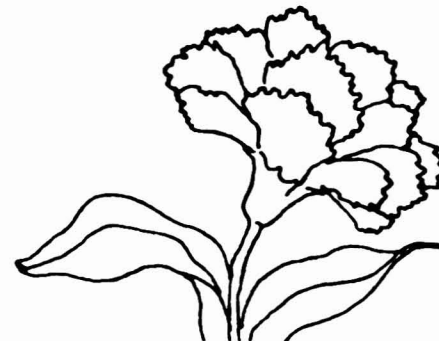
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00시 부터 오후 1:00까지의 시간으로 학습이 제공된다.

현재 권, 변진수, 백현옥, 오경아, 윤학덕, 이영희, 조남식, 트레이드엘 인희씨가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진으로 오계희씨(교장), 백경숙(교감)가 수고하고 있다.

매년 9월초와 2월초가 학기의 시작으로 되며 학교 건물은 2611 NE 125th Seattle WA. 981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업을 지망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상기 주소나, 365-5400, 522-2494 및 365-4128로 하시를 막론하고 문의하여 주시면 연락될 수 있게 되어 있다.

## 꽃은마음의 傳達

병원 결혼식 개업 악혼 각종파티  
장례식의 꽃등을 전화주문으로  
원하시는곳에 보내드립니다.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B) 325-5032 (H) 367-1534

##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기용품 일절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및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용호

###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이 현 진

우리나라였다면 한없이 맑고  
 높푸르를 늦 가을 하늘일텐데 이곳 씨애들은  
 두터운 회색빛 낮은 구름이 짓누르듯 땅낮게  
 깔리고 사방을 어둡게하는 벌써 우기의 초겨  
 울 날씨이다. 저멀리 바닷가 한구석에 하늘  
 이 등그랗게 뚫려져 그 사이로 파란색같이  
 하늘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햇빛줄기가 영화  
 의 한장면처럼 한줄기 땅으로 내려꽂혀진다.  
 별 보쪽한 일한 흔적도 없는데 벌써 봄,여  
 림, 가을이 다 가고 어느새 초겨울이 닥쳐  
 왔구나....하고 생각하며 집뒤(여래 이름도  
 모르는)베란다난간에 외로히 기대서있는 앙  
 상한 나뭇 가지의 몇개안티는 낙엽 가운데  
 한잎이 훌쩍 춤추며 떨어지는것을 무식하게  
 지켜 보면서 지금은 밀집된 도심지 주택가로  
 무섭게 변해버린 서울근교 숲속에서 15년전  
 가을 사진같이하던 친구와 함께 똑딱하게  
 훑아보던 낙엽을 그리고 그 친구를 문득 회  
 상해 본다. 그런데로 세월도 흘렀고 세  
 상도 많이 변했건만 떨어지는 낙엽을 지켜  
 보는 정감만은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변함  
 이 없는것 같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내 처지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 있다는 사  
 실을 빼놓고선....(그리고 또 하나가 있구  
 면!) 옛날 서울근교 숲속에서는 그런게 없  
 었는데 오늘 집뒤 명쇄도 없는 나뭇 가지의  
 빛바랜 낙엽한잎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해주는것 같기도 하다. 마치 O. HE-  
 NRY의 "마지막 잎새"를 읽고 난후 느꼈던것과  
 비슷한 그런 감명감을 느끼게 해주는것 같다.  
 이상하다....이처럼 달리 느껴질수가 있을까?  
 똑같은 낙엽을 보았을 따름인데....? 똑같은  
 것을 보되 보는 사람의 처지와 환경 입장과  
 마음가짐이 다를때 비쳐지는 것들이 바르게도  
 일그러지게도, 또 아름답게도 숲으거나 추하  
 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새삼 발견케 된다.  
 그러니까 눈은 사물을 보는 생리적 역할도 하  
 지만 또한 생각하게하는 물리적 역할도 함이  
 분명하다.

옛부터 우리 인간들은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을 스스로 "마음의 창" 또는 "마음의 거울"  
 로 일컬어 왔다. 우리들 눈에 비쳐지는 모  
 든 사물과 형상은 곧 사실로 믿고 인정해온  
 것이 우리들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을  
 보는 눈이 누구의 눈이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  
 라서 같은것을 보되 다르게 보여지기도 또 다  
 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이 우리 인간생활  
 의 묘한 조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장미꽃을 보아도 어떤이의 눈에는 아름  
 답게 보이기도 할것ियो 다른이의 눈에는 아  
 림다움속의 따가운 진홍의 가시가 돋보이기도  
 할것이며, 장미 꽃잎들이 머금고 있는 아침  
 채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들을 꽃의 요정이나

맑은 수정알에 비유하는 낭만을 지닌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보는 사람의  
 인격, 지성, 교양,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동  
 일한 사물을 보면서도 서로가 느끼며 해석함  
 이 달라지고, 이에따라 반사되는 언어행동이  
 천태만상, 각양각태로 달라지게 된다는 이치  
 를 알게 된다. 그러나 알고 또 짐고 넘어  
 가야 할것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감이라는것. — 누가 보아도 공통적으  
 로 느끼게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진리와 역을 함께 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장미꽃의 경우 모두가 우선 아  
 림답다고 보는 공통점에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다. 가시던 이슬이던 그 다음에 오  
 는것이고 이러한 2차적인 사고와 발전은 각  
 개인의 후천적인 인격, 교양, 지성따위의 영  
 향작용에 의해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자애와 자기희생으로 가득찬 자식을 보는 부  
 모의 눈, 즐거우나 슬프거나 항상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에  
 찬 눈길, 간이 부은 주정꾼의 눈에는 온 세  
 상이 다 콩알만하게 보일것ियो 사건을 쫓는  
 형사의 눈에는 모두가 범죄인으로 우선 비쳐  
 질것이며 오히려 이 세상을 광대의 것으로  
 보는 정신병자의 눈, 야박한 자신의 마음탓  
 에 모든것을 질루와 시기로 가름하려는 눈,  
 스스로를 세우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구실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눈, 그런가하면

각박한 생의 순간들을 흐뭇하고 따뜻함으로  
 감싸주고 덮어보려는 자신과 애정에 찬 눈,  
 이런 눈, 저런 눈.... 참으로 우리들은 각  
 양각색의 다양한 눈들을 가졌고 갖가지 "마  
 음의 창"과 "거울"들을 갖고 있음에 또한 놀  
 랍기도 하다. 그러기에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의 눈으로 모든 인간사를 보아 언제나  
 평화스럽고 애정에 찬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  
 려는 류의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반면 시기와  
 질루, 모략과 증상따위로만 범벅된 "거울"만  
 을 지닌체 소중한 인생의 나날들을 스스로를  
 괴롭히며 외로히 살아가는 류의 사람들도 있  
 음을 불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나  
 의 눈은....? 나의 "거울"은....?

이제 나의 이민생활도 어언 4년째로 접어  
 들고 있다. 그새 흘러간 수많은 나날들 나  
 의 눈에 비쳐졌던 미국생활을 되새겨 볼때  
 특별히 이렇다 할것이 별로 없는것같게도 여  
 거진다. 고국을 떠날때만해도 그러나 미지  
 의 이민생활에 걸었던 기대가 전혀 없었던것  
 같지는 않았지만 실상 3년이란 세월을 지내  
 놓고 보니 뚜렷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직도 못되는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참으로 오랜동안 나의  
 눈 즉 내 "마음의 창"이나 "거울"이 어떻게  
 생겼었음을 확연히 의식하지 못한채 그냥 살  
 아온것이 아닐까? 이는 바로 미국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할 이민일진으로서 무엇이던 또  
 렷하게 보고 지냈어야할 나의 눈이 빛을 잃

고 있었고 나 스스로가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젖혀 보이는 것을 모두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지를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민이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에만 바빠 마땅히 보았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을 스쳐 지나기만 했을 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이들어 내 눈이 어두어진 생리적인 현상때문에 볼 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보지 못했거나 보긴 보았어도 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지 못해서 비춰진 것들이 실상과는 달리 굵어지거나 뒤틀어져 보였기에 짐짓 못본 것으로 하려는 때문이었을까? 모든 것을 보기도 못본척할 수 있는 위인의 대범함이 있었다면 차라리 좋으려면 보고도 무엇을 보았는지 알 길이 없는 백제의 눈, 그것에 내 눈을 비유해 보기도 할까? 내일 모레면 502 개를 바라보는 나이에 갑작스레 미국이라는 선진사회에 날아들어 와서 하루아침에 해묵은 동양식 가치관과 인생관을 미국식 거울속에 풀어담지 못한데서 오는 소화불량증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 인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반드시 울컥한 날씨처럼만은 아니리라. 4년 전에 떨어버렸어야 할 고국의 미련이 공연히 새삼스레 가슴을 치는구나....

이제 저물어가는 이해에 붙여 혼자 생

각해 본다. 기왕은 미국 어쨌든 영위해 나가야만 할 이민생활, 같은 값이면 보람 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나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나 같은 동포들에게 따뜻한함과 기쁨을 줄수 있는 유익한 생활로 만들어 나가야 좋을게 아닌가.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니 반성을 우선 해본다. 내가 여태껏 사물을 혹은 남들을 내 나름대로 보기에 앞서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이 바르고 참되지 못했음이 원인이 되어 즐겁고 기쁘게 보낸 세월보다 짜증스럽고 구성지게 보냈던 나날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정녕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눈 "마음의 거울"을 언제나 깨끗이 닦아 비춰지는 모든 것을 참되고 순수하게 담아서 보아야하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좋건 나쁘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간에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정성과 자기도 야가 있어야겠다고 새삼 느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들간의 흥취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나락났다가도 지워짐이 하나도 어색할바 없는 우리 고국에서의 내 생활이 아니고 백제외의 먹물 자욱처럼 또렷이 표가 나는 이역만리 타국에서의 내생활속에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취해야만 할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나나 우리 모두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위에 덩으로 이민 1세의 인생이란 짐을 하나 더 얹어서 지고 살아가야함은 누

구나가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한 시간이라도 좋고 하루라도 좋으니 보다 많은 시간과 나날들을 서로 의탁하고 격려하며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넘치는 행복감으로 꼭 채워 보내기에 나의 눈 우리의 눈을 돌려봄이 어떨겠는가? 나 스스로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또 너도 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창"을 열어 서로의 고달픔을 즐거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험자리를 감싸주며 등거 동락함을 리없이 밝고 맑은 우리들의 "거울"로서 비춰내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닌 이민

1세의 힘겹고 고달픈속명적 인생의 그늘진 자욱 대신 화합과 총명, 단결된 개척자 정신으로 짙은 "조상의 얼"을 나의 자식 우리의 후손들 "거울"에 담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본다. 그리기 위해서 나는 먼곳의 무지개를 찾아보려하기 보다 우선 바로 내앞에 있는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을 먼저 참되고 순수하며 너그러움으로 가득찬 사랑의 눈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다짐하며 새해맞이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고자한다.

시애틀 한인장로교 성가대  
성탄축하 "메시아" 연주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성가대는 성탄절을 맞아 올해 제3회 성탄축하 메시아 대연주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한다고 한다.

일시 : 1983년 12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워싱턴대학교 Kane Hall 130호실  
지휘 : 김 필 송 선생  
반주 : 이 혜 연, 정 혜 원 집사  
출연 :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성가대  
워싱턴 대학교 실내 관현악단

\*참고 : 이연주회의 입장료는 없으며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위하여 본 한인회 보에 부착된 무료초대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회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강 병철 (522-5531)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코랄 정기공연을 보고

정병국

미국에서 삶에 쫓기다보면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지날때가 많다. 매일 초에 밀려드는 각종 고지서를 보고야 비로서 또 한달이 지났구나하고 느낀다. 그 보다는 이 빛을 물어나갈 걱정때문에 자신이 늙어가고 설이 바뀐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이민생활이다.

특히 우리처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란 도무지 없고, 틈을 내서 책을 읽고 길에 구르는 낙엽을 밟으면서 삶을 반추하는 것은 도저히 맛볼 수 없다. 그러나 세월은 어김없이 흐르고 계절따라 찾아드는 사철의 맛은 변함이 없다.

잠시 눈을 들어 야산을 보면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이 그림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면서 가까운 공원이란도 거닐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감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짙게 가슴에 파고든다.

이런 국화의 계절에 한국코랄에서는 제2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오래간만에 정다운 우리 가곡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 가벼운 외국 민요도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다함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분위기를 더욱 향수에 젖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른 성가편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숙하고도 은혜롭게 이끌어 주

었다. 이 지면을 통해 우선 합창단원 여러분의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바쁜 생활속에서도 연습을 거듭하여 좋은 결실을 가져온 대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제 몇가지 느낀점을 두서없이 적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음악 평론가도 아니다. 다만 노래를 좋아하는 자연인으로서 느낀점을 피력코저 할 뿐이다.

첫째로 제1부에 한국 가곡을 먼저 불렀으면 더 분위기가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로트럼펫들때 미스레이크가 있었다. 가을달, 오빠 생각등은 세속편이라기 보다는 한국 가곡이며, 제2부에 오!스잔나, 스와니강등은 외국 민요에 속하는 것이지 한국 가곡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그램을 짤때 오류로 볼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악보없이 부르는 자신감은 딱 인상적이었으나 약간의 확음에 거침이 있었다. 또한 한국 가곡이나 가벼운 외국 민요를 부를 때에는 묘의 울음을 조금 가미했으면 더욱 보기가 좋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우리 가곡을 부를때 좀더 정감있게 울음을 약간씩 넣으면서 부르면 훨씬더 분위기가 화기애애 하였을 것이고, 무표정에서 오는 굳은 악상을 캄투라취 한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다함께 부르는 노래의 착상은 정말로 좋았다. 다음번에는 우리 고포중에 고전무용이나 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하고 춤도 출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성가편은 일반인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음악이고 또 종교인이 아니면 별로 흥미도 없는 곡이지만 필자가 듣기에는 이번 공연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열성을 다해 부른것이 바로 이 성가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프라노와 앨토솔로는 일품이었고 합창도 아주 잘 불렀으며 그 어려운 확음을 무난히 불러 넘겼다. 특히 운목사님의 지휘는 합창대원을 편안히 노래 부를수 있게 아늑한 분위기를 감동케 했으며 청중들로 하여금 엄숙하고도 거룩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이끌었다. 차라리 목사님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휘자로서의 재질을 더 짙게 타고나신것 같다.

물론 운목사님은 살고나 기도도 일품이고 여러번 필자와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받은적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서 살고 영어를 하고 미국식으로 산다고 해도 오리지날은 한국인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단체를 우리가 서로 돕고 협조하여 앞으로는 일년에 한번만이 아니고 두번이고 세번이고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국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우리의 가곡속에

는 우리의 정서와 풍속이, 그리고 전통이 그속에 깃들여 있다. 쫓대없이 남의것을 모방이나 하고 흉내만 낼것이 아니라 우리고유의 예술을 이국땅에 심고 우리 이세들에게 담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영어로 팝송은 수없이 많이 부르면서 우리의 애국가도 못부르는 이 비극을 이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굴로 제 이름도 못쓰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하이"하고 지나쳐 버리는 이세들의 현실을 누구에게 탓하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수 있을까?

유태인이나 중국인은 세계 어느곳에 살든지 자식을 나오면 자기 모국어부터 먼저 가르친다. 그래서 몇대가 외국에서 살아도 자기말과 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지 말고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쉽고도 기본적인 일부터 하자. 이것이 참 애국이요, 우리의 뿌리를 이국땅에 내리는 첩경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한국코랄의 공연은 참으로 뜻있고 보람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한번 한국코랄 여러분의 노고와 그 거룩한 뜻에 감사를 드린다.

### 바람의 새해

윤병설

한해가 지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에 희망을 걸며 보람된 계획을 세워 본다.

매년 해가 바뀌면서 한번쯤 생각을 머물게 하는 계절의 문턱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우선 먼저 새해하면 바람의 결산과 아울러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덧없는 한해를 보내면서 계획에 짜여진 결과가 어떠했나 돌이켜 보면서 반성과 표현하는 후유증은 각 사람마다 구구 변화스럽다.

항상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려는 인간이기에 오늘의 고통도 감내하며 내일을 바라본다는 본능일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은 고통의 행진속에서 깨달만한 진실이라도 있다면 그런대로 성숙하고 용해되는 '바른의미'의 자성을 깨닫게 된다.

이와같은 '바른의미'의 자성이 결여된 새해가 오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

새해가 되면 우선 먼저 모두의 평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인사말이 오간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정이 습관화된 가슴깊이 뿌리 밖은 바람의 표현일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오가는 대화속에 진실의 표현이 말로써 표현된다면 이것 역시 허망스럽

다기보다 자기 미숙의 반복이 아닐까? 새해와 더불어 속살이 온택해 지는 새해라는 변화속에 달라져야 하리라.

시간이 흐르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면서 어제와 오늘의 일련적인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외형적인 구조나 관례는 조금씩 달라질지라도 본질면에서는 별 다를바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인성 자체의 본질이다. 그로 이 순수한 본질을 시각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며 대인관계의 사회속에 각각의 역할로 선용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 변화보다는 외형적인 표현에 집착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본다.

본질적 진실은 그 속 알맹이를 굳이 표현할 필요도 없지만, 가식과 허례는 그 자체의 겉치레에 분분한 주식으로 가득하나 결과는 곧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오늘날 특수 모임체에도 전염되는 감회로 염려스럽다.

배움의 지식적 본별이나 사회 각 분야에 흐름이 '바른의미'를 추구하는 노력들이 열망하는데 비추어 그래도 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

는 '특수한 모임체에서 참된 진리를 의면하고 대외적 표현 효과나 편견된 습관의 주도는 결과적으로 내적 성숙을 가로막고 그 빛을 가리우는 사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외적 변창이나 화려함만을 꿈꾸는 티끌된 사고 방식은 결코 근절되어야 하리라.

학문의 범주에도 같다. 심오한 이론과 깊은 사색의 결실 보다는 외형적 허영과 자만이 기승하며 철인적 양심보다는 알팍한 처세술이 더 빛을 내며 대접을 받는 경향도 부인하지 못할 사항의 하나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적 변화의 성숙을 꾀하는 심박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제 맞이하는 새해의 바람에 겸허한 자세로 자기 성숙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작심삼일의 옹두사미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한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회적인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와 계획이 보람된 시간을 음미하는 뜻인줄 안다.

뒤 돌아볼 수 없는 시간속에 때묻어 가는 인생채취를 느껴 본다면 혼음인들 무심할 수 있으랴! ....

새해에는 보다 아름다운 성숙한 내적요소의 계획이 기필코 실현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 아침 두손모아 기원하자.

- 이해를 보내면서 -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98499

시애틀 지역 775-3456

진료일시 :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청도식당**

TSING TAO

◎순한국식중화요리전문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화-목 : 12:00 - 10:00 PM  
 금-토 : 12:00 - 11:00 PM  
 일 : 1:00 PM - 10:00 PM  
 월 : 휴일

전화 367-9339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GOVERNOR SPELLMAN AND DR. SHIN'S  
TRIP TO KOREA AND JAPAN

Governor and Mrs. Spellman of the State of Washington led an historic trade mission to Korea and Japan between September 26 and October 10, 1983. By special invitation from the governor, Dr. Paull H. Shin, president of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representing the Korean community, and Dr. John Ishi, president of St. Martin's College, representing the Japanese community, accompanied Governor Spellman. The mission group consisted of about thirty dignitaries both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in the State.



The three day itinerary in Korea began by visiting President Chun Doo Hwan at the Blue House. Governor Spellman, Dr. Shin and Mr. Richard Walker, the U.S. Ambassador to Korea, were invited by the president for a talk which lasted well over forty-five minutes. The conversation ranged from the downing of the Korean Airline 007, trade between Korea and Washington State to Koreans in America, to futur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Washington State. Other functions of the mission included a visit to Panmunjom and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divides North and South Korea, a briefing with Ambassador Walker, a meeting with the 8th U.S. Army Commanding General, visit with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Korean Airlines, KOTRA, attendance at the ASTA World Congress held in Seoul and visits with various high ranking business and trade establishments. The mission members were also inundated with receptions and banquets such as the one given by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lumni Association, the banquet sponsored by the Washington State business people in Korea, the one given by KOTRA, and also a splendid banquet given by the Korean Airlines for ASTA participants. Governor Spellman also reciprocated by inviting bo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 leaders to a banquet held at the Choson Hotel.

During the stay in Korea, Dr. Shi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preparing for and escorting the governor's party to all the functions as well as helping each one of the mission members to have a most pleasant stay in Korea. In spite of the tight schedule, Dr. Shin was able to show the mission members several highlights of the Seoul area such as Kyongbook Palace, Duksoo Palace, the National Assembly and naturally some shopping areas such as Southgate Market and Itaewon Shopping Center. Many admired quality of Korean goods and inexpensive prices. On the whole, the stay in Korea was an outstanding success and everyone including the governor complained that their stay in Korea was just not long enough.

The visit to Japan began with the celebration of the twentieth year anniversary of sistership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State and Hyogo Prefecture hosted by Governor M. Sakai in Kobe. Other activities in Japan

included visits with the Governor of Kyoto Prefecture and Tokyo Municipal officials as well as visits to Matsushida Electric Company, Kawasaki Plant and numerous public and private business and trading establishment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Tokyo visit was a reception given by Ambassador Mike Mansfield,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Japan. Naturally, the trip to Japan was not complete without various receptions, banquets as well as sightseeing and shopping trips for the mission members. As a professor of history and having lived in Japan for three years, Dr. Shin served as an unofficial interpreter and guide to many mission members in their activities.

Governor Spellman's trade mission to Korea and Japan was an overwhelming success in terms of promoting better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State and its Asian neighbors. This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the mission members who are very influential governmental and business leaders within the State of Washington to see and compare Korea and Japan in terms of problems and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Understandably, most of the members knew and recognized Japan as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giant. For most of the mission members, this was their first trip to Korea and many still carried a stereotype image of a war-torn country with little economic development. A few days in Korea completely changed their image to that of a positive, dynamic and modern nation. All the mission members expressed their surprise to find Korea transformed from an underdeveloped country into a dynamic, energetic and industrial nation. Having witnessed the D.M.Z. most members expressed concern for the realism of the military threat from the north recognized the "profound need for a strong defense alliance against the communist threat." Also, most of the members recognized Korea a "strong defense partner" and a "trade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All the mission members returned home with a new and better impression of Korea characterizing as one of the mission members called, "a beautiful, dynamic, and a miracle making nation, and the people, friendly, warm, hard-working and above all compatible vis-a-vis their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free world."

## 사업체 매매 CENTURY 부동산

400 BOREN AVE. SEATTLE  
☎ (206) 223-8949  
SAM YUN 878-3647  
SUSAN KIM 392-8535  
이 양 남 246-5386

- 세탁소 : (5일영업, 현주인 30년) 집세싸고  
리스 좋음. \$7만5천 + 재고,  
\$3만8천 DN. 년매상 \$6만5천
- 세탁소 : \$7만9천, \$3만6천 DN,  
년매상 \$7만 집세싸고 리스 좋음.
- Shoe Repair: Mall 안에 위치 - 6일 영업  
\$4만9천 Cash, 년매상 \$5만5천,  
년수익 \$3만
- Tavern: 전망, 리스, 렌트 좋음.  
\$11만5천 + 재고, \$3만5천 DN  
월매상 \$2만2천5백

- 모 델 : 34 Unit 9년된 건물 \$49만.  
\$14만 DN. 년매상 \$12만 이상
- 2층 3BR House : \$5,000 DN.  
Assume Loan \$6만6천  
월부금 \$6백80.3년된 Federalway
- Deli Market : \$19만 + 재고, \$8만 DN.  
월매상 4만 + Gas Comm
- 세탁소 : \$11만5천, \$6만 DN. 쇼핑센터내 있음.
- 기 타 : \$5천 다운하고 Payment만  
떠맡을수 있는 집있음.

『편집후기』

- \* 이번호로서 1983년 한인회보도 마지막호가 된다.  
알차게 꾸며보려 했던 당초의 의욕에 반도 미치지 못한 회보를 매번 내놓으면서 아쉬움만 남긴채 한해가 지난것 같다.  
앞으로 보다 유능한 편집진이 짜여져 한인회보가 명실공한 한인사회의 대학의 광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 올해 새로 시작된 영문페이지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주기를 바란다. 영문페이지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었던 유대식 박사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 독자들의 기고와 반응이 없는 회보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투고와 품위있는 글들을 기고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본회보를 통하여 계속 좋은 글들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 \* 이번 마지막호를 편집하는데 많이 협조해준 조성욱 총무에게 감사한다.

또한면 우리 자신도 매일 매일 치루어야하는 고달픈 생활가운데에서도 커뮤니티의 일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함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될것이라고 믿는다.  
올해와 같이 성실한 일꾼들이 계속나와 몇년만더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주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남못지 않은 훌륭한 교포사회의 기반이 형성되리라 믿는다.  
일을 못다한 한해를 보내며 다음해 주자들에게 보다 큰 기대를 걸어본다. (K.P.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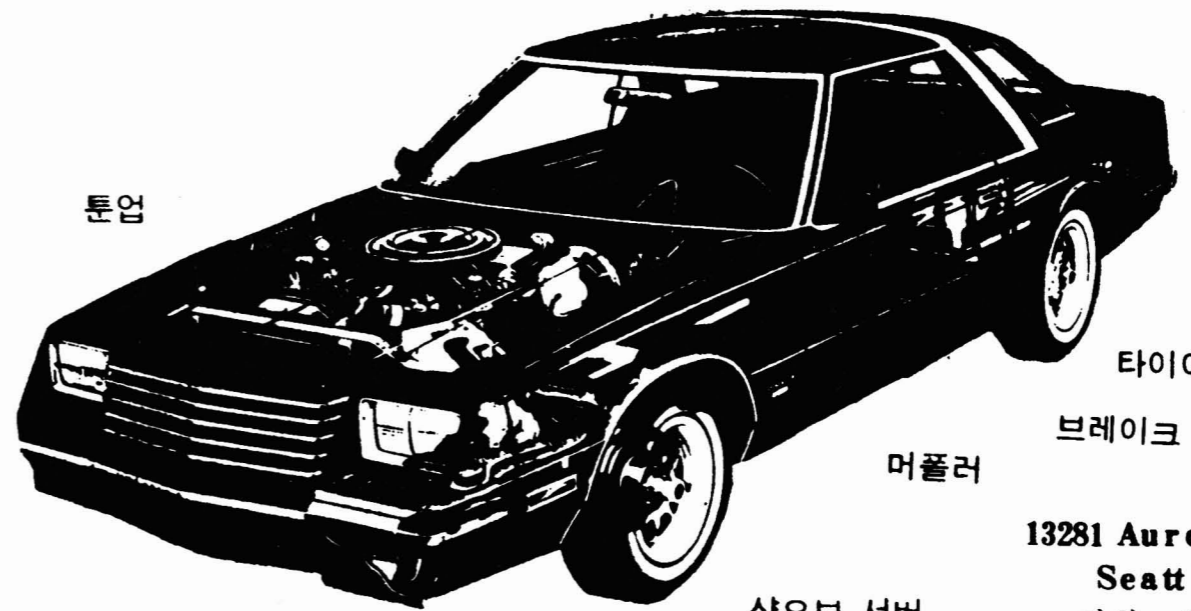
한인회보 1983년 제6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reet Street N. E.  
SEATTLE, WA 98125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린우드 B.B.Q 센터**  
불갈비, 냉면(한식일체)  
영영업시간: 오전11시~오후10시  
각태일라운지: 오전11시~새벽2시  
(7 DAYS A WEEK)  
★각종파티, 연회석원비, 넓은파킹장준비  
ORIENTAL B.B.Q CENTER  
3828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 ☎771-3700

성형수술 전문의  
DAVID A. EKLAND, M.D.  
CERTIFIED-AMERICAN BOARD  
OF PLASTIC SURGERY  
쌍카풀 수술  
유방 확대  
각종 교정성형수술  
126 AUBURN AVE., AUBURN, WA  
**939-1440**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컴퓨터로 장부정리 ※ 퇴직 연금 상담  
※ 일반 인컴 텍스 ※ 세무상담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공증업무  
※ 기밀 절대보장  
**623-4181-3**  
2809 4th Ave. Seattle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톤업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전화 362 ~ 4449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밋송  
삭오브 서버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 개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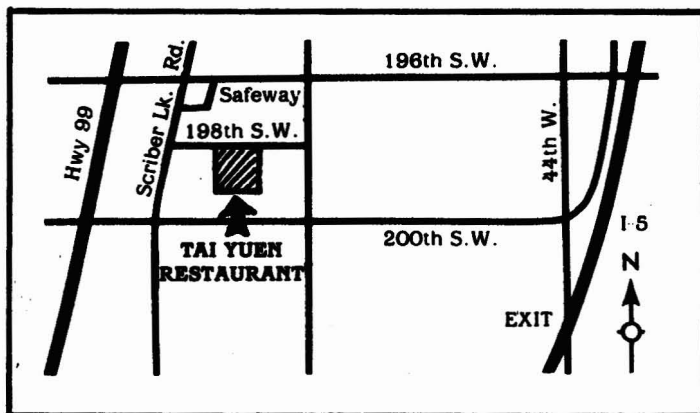
초겨울에 접어들어 날씨가 쌀쌀해진  
이때에 교포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LYNNWOOD 중심가에 (아래 지도 참조)  
중국식 식당 "태원" (TAI YUEN) 을 인수  
하여 새롭고 아담한 분위기에서 좋은  
음식으로 교포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단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전화:

778-1223

# 荣味亭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김용세와 그의악단)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 명에서 150 명 400 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 YOUNG ME RESTAURANT

### 623-3112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